

가정환경요인이 영재아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Family Factors on Achievement of the Gifted Children

나사렛대학교 교육개발센터
대우교수 송수지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Korea Nazarene University

Professor : Song, Suji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By targeting 113 gifted underachievers and 128 gifted achievers from 17 elementary schools, this study examines the home variables that affect gifted children's underachievement. In an effort to determine home variables of gifted achievers and underachievers, their homes' socio-economic status was analyzed and their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was examined. First, the home environments of the gifted achievers and underachievers were compared, with the finding that their homes' socio-economic status,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and other home factors differed. Parents of gifted achievers raised their children in a rational and democratic manner, while those of gifted underachievers tended to raise their children in an irrational and authoritarian manner. Second, discriminat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home variables tha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dicating that their homes' socio-economic status showed a low discrimination compared with their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Likewise, among the family factors, active involvement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underachievement of gifted children.

주제어(Key Words): 미성취영재(gifted achievers), 성취 영재(gifted underachievers),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부모양육행동(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

I. 서론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능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로 보고되고 있는바(구병두, 1996), 지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영재의 미성취 현상은 미성취 영재 자신의 행복과 자아실현에도 큰 장애가 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일찍부터 높은 지능이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업성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미성취 영재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으나(Renzulli, 1991; Sandra, 2003; Shaw, 1960),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성취 영재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이에 관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영재의 미성취를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에서도 가정환경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하는 바, 이는 가정의 영향이 지배적인 아동기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포함하는 아동의 가정환경은 아동의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실은 영재 아동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는 점(이해명 1998; 윤경희 2003; Davis, 1998)에 기초한 것이다. 미성취 영재의 특성이나 원인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도 가정환경 요인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Baker, Bridger, & Evans, 1998; 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 Rimm & Lowe, 1988; Zilli, 1971), 영재의 미성취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해왔다(Green, Fine, & Tollefson, 1988).

가정환경 요인은 크게 아동이 속해 있는 객관적 환경변인을 의미하는 지위변인과 가정의 심리적 요인을 의미하는 과정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지위변인에는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소득수준, 거주지, 형제 수, 출생순위 등이 포함되고 사회경제적 변인이 대표적이며, 과정변인에는 가정 내의 분위기,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등이 포함되며, 부모 양육태도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변인과 부모양육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성취 영재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Sally, 2002), 대체로 미성취가 잠재력과 실제 수행간의 불일치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고(Peterson & Colangelo, 1996; Supplee, 1990; Whitmore, 1980), 본 연구에서는 미성취 영재의 정의와 관련하여 IQ와 성취검사 점수의 차이를 통하여 미성취 영재를 실제 판별 가능하게 정의내린 Supplee(1990)의 정의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기관에 이미 속해 있는 아동들을 대상

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 초등학교에서 직접 찾아낸 미성취 영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몇 안 되는 미성취 영재 관련 연구들(박완득, 1996; 윤경희, 2003) 대부분이 일반학교가 아닌 영재교육기관의 영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중 성취 영재와 미성취 영재를 상대적으로 구분한 후 양자를 비교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우리나라의 영재교육기관의 경우 대부분 그 선발기준으로서 높은 학업성취를 요구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영재의 미성취 사례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영재의 미성취를 초래하는 가정환경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본 연구가 가정이나 교육현장에서 미성취 영재의 교육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영재의 미성취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성취영재와 미성취 영재의 가정환경 요인(사회경제적 변인, 부모양육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미성취 영재와 성취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가정환경 요인(사회경제적 변인, 부모양육태도)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경제적 변인과 미성취 영재

가정환경 중 지위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위변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한다.

Montague(1964)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아동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취도 검사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해명(1998)은 가정의 구조적 변인 중에서 경제수준이나 가족구조 그리고 가족 수와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는 낮지만, 가족의 교육정도나 아버지의 직업과는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가정의 지위변인과 학업성취를 연구한 우리나라 대다수의 연구에서도 지위변인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습부진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교육정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김동일, 1999).

반면, 가정의 지위변인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밝힌 황정규(1977)의 연구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연구한 강정구(1986)의 연구에서는 모두 약한 상관만을 보여주었다. 박경숙(1981)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변인과

학업성취와의 상관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정도,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모두가 학업성취와 거의 상관이 없게 나타났다.

미성취 영재를 대상으로 한 가정환경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가족분위기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에 대한 것이며, 몇몇 연구에서 과정변인과 더불어 지위변인과 미성취와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 있다. Gough(1955)와 Eva(1994)는 미성취의 근본원인으로 부모의 양육방법의 문제와 더불어 이혼이나 별거, 형제관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Gill(198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낮은 수입으로 인한 학습환경의 부재가 미성취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Durr(1964)는 미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배경의 하나로 부모들의 교육과 직업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Roger(1998)도 미성취 영재 가정의 성취 영재가정에 비해 대가족이고, 편부모 양육이 많으며, 부모가 주로 상업이나 기술직에 종사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낮은 부모의 학력이 특징이라고 기술하였다. 이와는 달리 미국의 대표적인 영재 프로그램인 쿠퍼티노 프로젝트에 참가한 미성취 영재를 대상으로 그들이 속한 가족의 지위변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모가 평균이상의 지능을 가진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였다. 부모의 직업으로 회사원(엔지니어)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쿠퍼티노 지역의 특징이다(Whitmore, 1980). 이는 기존의 일반 미성취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나 미성취 영재를 대상으로 한 Durr(1964)와 Roger(1998)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2. 부모양육태도와 미성취 영재

부모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서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로 키웠느냐는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줌으로써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이동영, 1997).

양육행동과 태도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구체적 행동과 감정이 내포된 태도로 구분할 수 있지만, 부모의 태도에는 부모의 행동이 반영되기 때문에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은 특별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하여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된다(박성연, 이숙, 1990). 부모의 태도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행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묘사된 진술문을 통하여 태도를 측정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추상적인 양육태도보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가정환경 중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치관은 직간접적으로 학업성취나 성격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변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Hess와 Shipman(1965)은 부모의 태도가 명령적이고 지시적이기 보다 인지적이고 합리적일 때 아동의 지적발달 수준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아동간 상호작용의 양상과 지적발달 수준 및 학업 성취도간에 높은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Kontos(1983)는 부모의 반응도와 애정표현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성취압력과 다양한 경험제공, 지적 탐색 허용도는 지적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식별하였다.

국내 박기종(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압력이 높은 것으로 지각한 아동들의 학업성적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승기(2002)는 부모양육태도가 학습전략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성연(1981), 장을균(1982), 주현립(199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성취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여러 학자나 많은 선행연구자들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성취와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성취 영재들의 가족관계 및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성취 영재의 가정환경은 학문적 수행을 포함하여 아동의 행동에 대해 비조직적이고 불분명한 지침을 주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Rimm & Lowe, 1988). 가정의 지지적인 환경의 부족은 미성취를 활성화시키고, 조직력이 부족한 부모의 모습은 미성취의 원인이 된다(Green, Fine, & Tollefson, 1988; Rimm, 1986).

Shaw(1960)는 미성취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미성취 학생과 부모간의 대화의 결여에서 기인하고, 이로 인해 아동은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모든 것에서 거절당한다고 느껴 미성취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는 미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족이라고 하였다. Van 과 Monks(1992)도 미성취 영재와 부모간의 갈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Jean(2001)도 미성취 영재의 종단적 사례 연구에서 미성취 영재아의 학업성취가 가족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Rimm(1995)도 영재의 성취와 미성취 행동에 있어서 양육태도와 부모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의 부모양육태도를 비교한 선행 연구에서는 성취 영재의 부모들이 미성취 영재의 부모보다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Taylor, 1994), 미성취 영재의 부모들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경향이 있다(Anonymous, 1998; Pendarvis, Howley, & Howley,

1990; Weiner, 1992)고 보고하였다. 미성취 영재의 가정은 더 제한적이고 처벌 지향적이거나(Clark, 1983), 반대로 너무 관대하여 미성취의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Fine & Pitts, 1980; Rimm & Lowe, 1988). 성취 영재 부모들은 성취 지향적인 행동으로 긍정적인 역할의 모델이 되는(Rimm & Lowe, 1988; Zilli, 1971) 반면에, 미성취 영재의 부모들은 말로는 성취의 가치를 강조하나, 실제로는 성취가 결여된 생활을 보여준다(Rimm & Lowe, 1988). 또한 성취 영재의 가족들은 미성취 영재의 가족들보다 자기 동기부여, 환경적 개입, 자율성을 북돋아 주는 환경을 제공한다(Taylor, 1994). 미성취 영재들은 부모 같은 삶을 원하지 않을 것이며(Clark, 1983; Weiner, 1992), 더 많은 가정 갈등들이 미성취 영재의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Fine와 Pitts(1980)는 추측했다. 도시 미성취 영재의 삶에 대한 최근의 연구(Reis, Hebert, Diaz, Maxfield, & Ratley, 1995)는 가족 간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미성취 영재의 생활이 성취 영재의 행복한 삶과 대조된다고 보고하면서 기존 연구들의 견해를 지지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가정환경을 영재의 미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성취 영재와 미성취 영재 가족 간에는 아동의 행동을 지지하는 중요한 변인에 차이가 있다는데 대체로 합의한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영재의 미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요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미성취 영재의 가정환경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서울시에 위치한 17개 초등학교의 4, 5, 6학

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인 미성취 영재를 선발하였다. 지능검사결과 9 stanine¹⁾ 이상이며, 지능검사결과와 표준화 학력검사²⁾의 점수³⁾가 2 stanine⁴⁾ 이상 차이가 나는 미성취 영재 113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즉, 지능지수 125이상이며, 표준화학력진단검사 결과 12.5점 미만의 아동이 그 대상이다. 비교집단인 성취 영재 집단은 지능지수와 표준화학력 검사점수 모두 9 stanine 이상이므로, 지능지수 125이상이며 표준화학력진단검사결과 14점 이상의 아동 128명이 그 대상이다.

미성취 영재의 학년은 4학년이 35명(31%), 5학년이 40명(35.4%), 6학년이 38명(33.6%)명 이었고, 남아가 83명(73.5%), 여아가 30명(26.5%)으로 남아의 비율이 높았다. 비교집단인 성취 영재의 학년은 4학년이 42명(32%), 5학년이 33명(25.8%), 6학년이 53명(41.4%) 이었고, 남아가 78명(60.9%), 여아가 50명(39.1%)으로 남아의 비율이 높았다.

¹⁾ 스탠다드 나인(standard nine)의 약어인 스탠나인(stanine) 방식은 학생들의 점수를 평균 5,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상의 면적비율에 따라 9단계로 나눈 것으로 1과 9 stanine은 상하위에서 각 4%, 2와 8 stanine은 각 7%, 3과 7 stanine은 각 12%, 4와 6 stanine은 각 17%씩 분포하고 5 stanine은 중간 20%에 해당한다. 현행 수능점수 등급제가 stanine 방식을 따르고 있다. 9 stanine은 지능지수 상위 4% 이상이므로 지능지수 125-130 이상이다.

²⁾ 표준화학력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9 stanine, 7 stanine 점수로 변환한다. ① 4개 과목별로 4%, 23% 각각의 스탠나인 점수를 구한다. ② ①에서 구한 스탠나인 점수의 4%, 23% 각각에 해당하는 4과목 평균을 구한다. ③ 학생의 표준화학력검사 4과목의 평균 점수가 ②에서 구한 4% 점수의 평균보다 높으면 성취, 23% 점수의 평균보다 낮으면 미성취로 나눈다.

³⁾ 표준화학력검사 점수는 각 과목당 20점 만점이며,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네 과목의 평균이다.

⁴⁾ 상위 23% 미만이므로 한 반 40-45명을 기준으로 본다면, 학급등수 대략 9등 이하이며, 표준화학력검사 4과목 점수의 평균이 12.5 점 미만이다.

<표 1> 영재의 미성취를 유발하는 가정환경요인

변인		영재의 미성취를 유발하는 가정환경요인(인용)	
가정	지위변인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의 낮은 교육 및 직업수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박완득, 1992; 윤경희, 2003; Durr, 1964; Gill, 1984; Montague, 1964; Roger, 1998), 결혼 가정(Eva, 1994; Fench, 1969)
	과정변인	부모 양육 행동	지지적 환경의 부족(Green, Fine, & Tollefson, 1988; Gurman, 1970; Jean, 2001; Rimm, 1986; Van & Monks, 1992) 부모간 불일치(Gough, 1955; Rimm & Lowe 1988; Rimm, 1986), 권위주의적(Anonymous, 1998; Clark, 1983; Pendarvis, Howley, & Howley, 1990; Taylor, 1994; Weiner, 1992), 과잉보호(Fine & Pitts, 1980; Gough, 1955; Pendarvis, Howley, & Howley, 1990; Rimm, 1986; Rimm & Lowe, 1988; Weiner, 1992), 적대적 관계(Conlengelo & Dettmann, 1983; Olszewski, Kulieke, & Buescher, 1987), 무관심한 태도(Barrett, 1957; Erhard, 1972; Jeon & Feldhusen, 1993; Mandel & Marcus, 1988; Pierce & Bowman, 1960), 지나친 압력(Brown et al., 1993; Strang, 1951), 성취 지향적이지 않음(Rimm & Lowe, 1988; Taylor, 1994; Zilli, 1971)

미성취 영재의 지능은 IQ 125 ~ IQ 151로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 지능은 IQ 134.3 이었다. 성취 영재의 경우는 IQ 127 ~ IQ 152로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 지능은 IQ 135 이었다. 표준화학력검사점수는 미성취 영재의 경우 1점에서 12.2 점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8.5점 이었다. 성취 영재의 경우 14점에서 19.3점으로 평균 16.4 점이었다.

2. 측정도구

1) 미성취 영재 판별 도구

본 연구에서는 미성취 영재를 판별하기 위하여, 개별 지능검사인 KEDI-WISC, 표준화학력진단검사, 교사의 미성취 영재 의뢰서 등을 사용하였다.

(1) KEDI-WISC(박경숙 외 4인, 1987년)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웨슬러 지능검사(WISC-R)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표준화한 KEDI-WISC(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박경숙 외, 1987)를 사용하였다.

KEDI-WISC는 만 5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개별화된 지능검사로, 크게 언어성과 동작성 검사로 나뉘며, 모두 12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성 소검사에서 얻어진 총합은 언어성 IQ점수로, 동작성 소검사에서 계산된 점수의 합은 동작성 IQ점수로 계산되어진다. 언어성 소검사와 동작성 소검사가 합해져서 전체 IQ점수를 산출한다. 검사는 한 명의 검사자와 한명의 아동이 한 조가 되어 1시간 가량 동안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는 언어성과 동작성 소검사를 교대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각 소검사의 평균 신뢰도는 .52에서 .82에 이르고, 언어성 검사 .91, 동작성검사 .93, 전체검사 .95이며, 검사의 구성은 <표 2>과 같다.

(2) 표준화학력진단검사(한국적성연구소, 2004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취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적성연구소의 표준화학력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표준화학

력진단검사는 제7차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개발된 검사로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은 객관식과 주관식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시간은 두 과목 씩 묶어서 45분씩 총 90분이다. 각 신뢰도는 .72-.87로 대체적으로 안정된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준화학력진단검사의 각 과목별 구성은 <표 3>와 같다.

(3) 교사의 미성취 영재 의뢰서

본 연구에서는 지능검사와 표준화학력검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대상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미성취 영재 의뢰서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먼저, 교사들에게 Whitmore(1980)의 미성취 영재 특성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미성취 영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미성취 영재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교사로부터 추천받았다. 교사의 미성취 영재 의뢰서에는 평소 학교에서 아동의 학습수행 정도와 이 아동을 미성취 영재로 의뢰하게 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2) 미성취 영재의 가정환경 분석 도구

(1)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재산상태, 가옥의 형태, 소득 수준 등이 포함 될 수 있으나, 소득 수준과 부의 직업 수준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으로 파악이 용이한 부모의 학력수준과 직업수준만을 고려하였다(윤성길, 1992).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55%(12점), 직업수준에 45%(10점)의 비중치를 주어 산출한 윤성길(1992)의

<표 2> 지능 검사의 구성

언어성	동작성
① 상식(information)	② 빠진 곳 찾기(completion)
③ 공통성(similarities)	④ 차례 맞추기(picture arrangement)
⑤ 산수(arithmetic)	⑥ 토막 짜기(block design)
⑦ 어휘(vocabulary)	⑧ 모양 맞추기(object assembly)
⑨ 이해(comprehension)	⑩ 기호 쓰기(digit span)
*⑪ 숫자(digit span)	*⑫ 미로(mazes)

*표는 보충검사, 번호는 검사의 실시순서를 나타낸다.

<표 3> 표준화학력진단검사의 구성

과 목	구 성	문항수	소요시간
국 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지식, 이해, 적용	20	45분
과 학	살펴보기, 무리 짓기, 재어보기, 조사발표하기, 만들기, 놀이하기	20	
수 학	수와연산, 도형, 규칙성, 함수, 측정, 확률과 통계	20	45분
사 회	인지, 정의, 심체, 가치, 태도, 지식, 기능	20	

공식을 참고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부의 교육수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수준 x 1.43 으로 계산하였다.

(2) 부모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는 구체적인 부모의 행동들로 구성된 박성연(1990)의 '어머니 양육 행동 척도' 를 사용하였다.

어머니 양육 행동척도는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의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1문항이다. 각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 의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의 1점까지 5단계 평정척도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양육 행동척도는 51문항을 포함하는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숙(1991)이 1990년과 1991년에 걸쳐서 본 척도의 표준화와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척도의 보고된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62 ~ .79이다.

본 연구의 검사지의 내용은 다음<표 4>과 같다.

3. 연구절차

미성취 영재의 가정환경의 특성 분석을 위해 먼저, 서울시에 위치한 17개 초등학교의 4, 5, 6학년 학생 중 미성취 영재를 선발하였으며, 구체적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아직까지 교사들에게 미성취 영재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이 생소하기 때문에, Whitmore(1980)의 미성취 영재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해 미성취 영재에 관한 정보를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 제공하였고, 미성취 영재에 관한 체크리스트와 교사의 관찰을 토대로 담임교사가 미성취 영재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의뢰하였다. 교사로부터 미성취 영재로 의뢰된 학생을 대상으로 KEDI-WISC 지능검사와 표준화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을 최종 선발하였다. 두 검사 모두 학교 교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검사 실시시간은 방과 후, 특활활동시간 등 학교의 편의에 맞추어 실시되었다. KEDI-WISC 지능검사는 개인지능검사로 연구자 외에 지능검사 경험이 있는 교사 및 대학원생 6인이 함께 실시하였다. 표준화학력진단검사는 집단검사로 연구자 및 교사가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지능지수 125 이상이며 표준화학력진단검사 결과 12.5점 미만인 학생 113명을 미성취 영재로 최종 선발하였다. 한편, 미성취 영재와 같은 판별과정을 거쳐 지능지수 125이상이며, 표준화학력진단검사 결과 14점 이상인

⁵⁾ 사회 경제적 지위에 재산상태, 가족의 형태, 소득 수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소득 수준과 부의 직업 수준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으로 파악이 용이한 부모의 학력수준과 직업 수준만을 고려하였다(윤성길, 1992). 사회경제적 지위 지수는 부모의 교육수준에 55%(12점), 직업 수준에 45%(10점)의 비중치를 주어 산출한 윤성길(1992)의 공식을 참고하였다.

<표 4> 검사지 구성 내용

변인		내용		검사지
가정	지위변인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부의 교육수준+모의 교육수준+ 부의 직업수준 x 1.43 ⁵⁾	가정환경 조사서
	부모 양육 행동	애정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 중심적이고 아동을 존중·수용해 주는 행동으로,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와 관련된 행동	박성연, 이숙(1990)의 부모양육 행동검사
		합리적 지도	아동을 도와주거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서 아동의 행동에 관련된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잘못을 지적해 주는 태도와 관련된 행동	
		권위주의적 통제	아동의 충동이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아동의 흥미나 능력보다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강제성을 보이거나 간섭을 하는 태도와 행동	
		과보호	부모가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되도록 막고 의존성을 보상해 주는 행동으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태도와 관련된 행동	
		성취	아동의 발달 수준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것을 격려해 주는 태도와 관련된 행동	
		적극적인 참여	아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며, 아동과 놀아주고, 아동이 어떤 일이나 문제해결에 대해 요청을 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태도와 행동	
		일관성 있는 규제	매일의 일과를 정해 놓고 있으며, 아동에게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게 하는데 대해 부모가 일관적인 태도와 행동	

아동 128명을 비교집단인 성취 영재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발된 미성취 영재 113명과 성취 영재 128명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조사(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양육행동검사)를 실시하였다. 담임교사와의 면담 및 학생 관련 자료들(가정환경조사서)을 통해 미성취 영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습득하였다.

4. 통계적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미성취 영재의 가정환경의 특성 분석을 위해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ANOVA(one-way analysis of

variation)를 통해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 집단 간 차이 유무를 알아보았다. 가정환경 요인 중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를 판별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며 그 판별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통계적인 유의도의 판단수준은 95%(p=.05)와 99.9%(p=.001)의 수준을 사용하였다.

⁶⁾ 동거인의 경우는 문항의 특성상 복수응답이 가능하다.

⁷⁾ 부모의 직업은 Warner(1960)의 분류방법에 따라 전문직(의사, 변호사, 법조인, 교수, 예술가 등), 관리직(대기업의 과장, 부장, 6급 이상 공무원, 영관급 군인 등), 사무직(일반회사 사원, 7, 9급 공무원, 위관급 군인 등), 판매직(상인, 외판원, 가게 주인 등), 숙련직(숙련 기능공, 운전직, 목수, 농부 등), 비숙련직 (일일노동자, 수위, 청소부 등), 무직 등 7단계로 나누었다.

〈표 5〉 연구대상의 가정환경적 특성

변인	집 단	미성취 영재		성취 영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출생순위	외 동	13	(11.5%)	9	(7%)
	첫 째	60	(53.1%)	60	(46.9%)
	둘 째	38	(33.6%)	56	(43.8%)
	셋 째	2	(1.8%)	3	(2%)
결혼여부	정 상	99	(87.6%)	128	(100%)
	결 혼	14	(12.4%)	0	(0%)
동거인 ⁷⁾	아버지	112	(99.1%)	128	(100%)
	어머니	109	(96.5%)	128	(100%)
	조 부	8	(7.1%)	12	(9.4%)
	조 모	15	(13.3%)	12	(10.3%)
	외조부	1	(0.9%)	1	(0.1%)
	외조모	4	(3.5%)	3	(2.3%)
	친 척	5	(4.4%)	0	(0%)
부모직업 ⁸⁾	아버지	9	(8%)	16	(12.5%)
	어머니	5	(4.4%)	11	(8.6%)
	전문직	33	(29.2%)	49	(38.3%)
	관리직	34	(30.1%)	7	(6.2%)
	사무직	15	(13.3%)	20	(15.6%)
	판매직	15	(13.3%)	0	(0%)
	숙련직	5	(4.4%)	1	(0.8%)
	비숙련직	1	(1.8%)	65	(57.5%)
부모학력	고졸이하	48	(42.5%)	9	(7.1%)
	대 졸	53	(47.7%)	83	(64.8%)
	대학원졸	10	(9%)	36	(28.1%)

IV. 연구결과

1. 미성취 영재와 성취영재의 가정환경요인의 차이

1) 미성취 영재와 성취영재간 가정환경적 특성

미성취 영재와 성취영재의 가정환경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5>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생순위는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 모두 첫째(미성취 영재 53.6%, 성취 영재 46.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둘째(성취 영재 33.6%, 미성취 영재 43.8%), 외동(미성취 영재 11.5%, 성취 영재 7%), 셋째(미성취 영재 1.8%, 성취 영재 2%) 순이었다.

결혼여부는 미성취 영재의 경우는 결혼가정이 14명(12.4%), 정상가족이 99명(87.6%)이었고, 성취 영재의 경우는 결혼가정이 0명(0%), 정상가족이 128명(100%)으로, 미성취 영재 집단이 성취 영재집단에 비해 결혼가정의 아동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조사한 결과, 성취 영재와 미성취 영재 대부분이 아버지(미성취 영재 99.1%, 성취 영재 100%)와 어머니(미성취 영재 96.5%, 성취 영재 100%)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아동이 0.1% ~ 13.3% 이었다. 친척과 사는 아동은 미성취 영재의 경우 5명(4.4%)이고 성취 영재의 경우는 0명(0%)으로 미성취 영재집단이 친척과 함께 사는 아동수가 더 많았다.

연구대상의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 직업의 경우, 미성취 영재의 아버지는 사무직 34명(30.1%), 관리직 33명(29.2%), 판매직 15명(13.3%), 숙련직 15명(13.3%), 전문직 15명(13.3%), 비숙련직 5명(4.4%), 무직 1명(1.8%) 순으로 사무직이 제일 많았다. 성취 영재의 아버지 직

업으로는 관리직 49명(38.3%), 사무직 42명(32.8%), 판매직 20명(15.6%), 전문직 16명(12.5%), 비숙련직 1명(0.8%) 순이었으며, 숙련직과 무직인 경우는 없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미성취 영재의 경우는 주부 65명(57.5%), 판매직 19명(16.8%), 사무직 7명(6.2%), 관리직 5명(4.4%)과 전문직 5명(4.4%), 비숙련 5명(3.9%), 숙련직 2명(1.8%) 순으로 주부가 가장 많았다. 성취 영재도 주부가 93명(7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는 전문직 11명(8.6%), 관리직 8명(6.2%), 판매직 10명(7.8%), 사무직 9명(7%) 순으로 전문직이 가장 많았고,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없었다.

부모의 학력은 미성취 영재의 아버지는 대졸 53명(47.7%), 고졸이하 48명(42.5%), 대학원졸 10명(9%)으로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성취 영재의 아버지도 대졸이 83명(64.8%)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 대학원졸 36명(28.1%) 고졸이하 9명(7.1%) 순으로 미성취 영재에 비해 학력이 더 높았다. 미성취 영재의 어머니 학력은 대졸 57명(50.4%), 고졸이하 46명(40.7%), 대학원졸 3명(2.7%) 순이었으며, 성취 영재의 어머니는 대졸 89명(69.5%), 대학원졸 23명(18%), 고졸이하 16명(12.5%) 순으로, 미성취 영재의 어머니에 비해 더 높은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간 가정환경요인 차이 분석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 간 가정환경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한 변수는, 가정환경의 지위변인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과정변인인 부모양육행동(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성취, 적극적 참여, 과잉보호, 일관성 있는 규제) 등이었다. 가족 특성 변수에 대한 미성취-성취 영재 집단 간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미성취 영재 집단(14.24점)에

<표 6> 가정환경요인에 대한 미성취-성취 영재 간 차이 검정

	미성취 영재(N=113)		성취 영재(N=128)		F	효과크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경제적 지위	14.24	3.24	17.21	1.88	77.68***	1.16
부모양육행동						
- 합리적 지도	2.36	.69	3.66	.57	255.85***	2.06
- 애정	2.64	.67	3.90	.59	239.50***	2.00
- 권위주의적 통제	3.27	.76	1.99	.61	207.77***	-1.86
- 성취	2.50	.77	3.63	.88	112.15***	1.36
- 적극적 참여	1.96	.55	4.19	.49	1114.27***	4.28
- 과잉보호	2.83	.57	2.69	.85	2.07	-.19
- 일관성 있는 규제	2.10	.60	4.00	.63	574.85***	3.08

***p<.001

비하여 성취 영재 집단(17.21)의 지위 점수가 2.97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 집단 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실제적인 차이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합표준편차를 이용한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성취 영재와 미성취 영재 간에 사회경제적 지위는 1.16 표준편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규모의 점수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양육행동에 있어서는 과잉보호 척도(미성취 영재 2.83점, 성취 영재 2.69점)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리적 지도 척도의 경우 미성취 영재 2.36점, 성취 영재 3.66점으로 성취 영재 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정 척도의 경우 미성취 영재(2.64점)에 비하여 성취 영재(3.90점) 집단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그밖에도 성취 척도(미성취 영재 2.50점, 성취 영재 3.63점), 적극적 참여 척도(미성취 영재 1.96점, 성취 영재 4.19점), 일관성 있는 규제 척도(미성취 영재 2.10점, 성취 영재 4.00점) 모두 성취 영재 집단의 점수가 미성취 영재 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성취 영재와 미성취 영재 간에 합리적 지도는 2.06 표준편차, 애정은 2.00 표준편차, 성취는 1.36 표준편차, 적극적 참여는 4.28 표준편차, 일관성 있는 규제는 3.08 표준편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규모의 점수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권위주의적 통제의 경우에는 미성취 영재 집단이 3.27점, 성취 영재 집단이 1.99점으로 나타나, 미성취 영재 집단의 점수가 성취 영재 집단에 비하여 1.28점 더 높았다. 효과크기를 산출한 결과, 성취 영재와 미성취 영재 간에 -1.86 표준편차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인 규모의 점수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살펴볼 때,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

간에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양육행동 등 전반적인 가정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성취 영재의 부모는 아동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양육시키는 반면, 미성취 영재의 부모는 비합리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아동을 양육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2.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의 가정환경요인 판별 분석

가정환경 변수의 하위 영역별로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 집단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판별함수가 실제의 미성취 영재 집단과 성취 영재 집단을 얼마나 잘 분류하여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판별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예측변수는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변수이다.

다음은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의 가정요인에 대한 판별함수 분석 결과이다.

<표 7>에 제시된 예측변수간 통합 상관관계 행렬을 살펴보면, 합리적 지도와 애정 척도간 상관이 .28, 애정과 권위주의적 통제간 상관이 -.22로 나타난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관성 있는 규제간 상관은 -.01, 애정과 적극적 참여간 상관은 .01으로 나타나 상관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는 예측변수들 간에는 상관계수의 크기가 .2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상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예측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 결과(<표 9> 참조),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는 평균 15.82점이었으며, 부모양육행동과 관련된 예측변수들은 2.59 ~ 3.31 범위의 평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의 상단에 제시된 램다값은 집단내 분산/총분산(총분산=집단내 분산+집단간 분산)의 비율이다. 이 수식으로 볼 때, 집단간 분산이 집단내 분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질수록, 즉 집단간 차이가 커질수록 램다값은 작아진다. 그러므로 램다값이 작을수록 집단간 판별력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분석 결과에서는 적극적 참여 척도의 램다값이 .17

<표 7> 가정환경요인 변수 간 통합 상관관계 행렬

	사회경제적 지위	합리적 지도	애 정	권위주의적 통제	성 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사회경제적 지위	1.00						
합리적 지도	.06	1.00					
애 정	.11	.28	1.00				
권위주의적 통제	.02	-.20	-.22	1.00			
성 취	.16	-.01	-.03	.05	1.00		
적극적 참여	.14	-.01	.01	.01	.18	1.00	
일관성있는 규제	-.01	.17	.22	-.06	-.08	.15	1.00

〈표 8〉 미성취-성취 영재의 가정환경요인에 대한 판별함수 분석 결과

예측변수	평균	표준편차	람다값 (Wilks' Lambda)	단변량 F(1, 239)	표준화된 정준판별 함수계수	비표준화된 정준판별 함수계수	판별함수와 변수간 상관
사회경제적 지위	15.81	2.99	.75	77.68***	.05	.02	.2
합리적 지도	3.04	.90	.48	255.85***	.22	.35	.36
애정	3.31	.88	.49	239.50***	.15	.24	.35
권위주의적 통제	2.59	.93	.53	207.77***	-.24	-.35	-.33
성취	3.10	1.00	.68	112.15***	.16	.19	.24
적극적 참여	3.14	1.22	.17	1114.27***	.68	1.31	.77
일관성 있는규제	3.10	1.13	.29	574.85***	.37	.60	.55
아이겐값	설명변량		정준상관	람다값	χ^2		판별적중률
7.85	98.9		.94	.11	513.51***		99.1%

*** $p < .001$

로서 판별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관성 있는 규제(.29), 합리적 지도(.48), 애정(.49) 등의 순으로 집단 판별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경제적 지위(.05)는 부모양육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판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 표준화된 정준 판별함수 계수를 통하여 판별함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D = .05 \text{ 사회경제적 지위} + .22 \text{ 합리적 지도} + .15 \text{ 애정} - .24 \text{ 권위주의적 통제} + .16 \text{ 성취} + .68 \text{ 적극적 참여} + .37 \text{ 일관성 있는 규제}$$

이 판별함수의 계수값은 예측변수들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예측변수 중에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적극적 참여(.68)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관성 있는 규제(.37)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에 제시한 판별함수와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참여 척도가 판별함수와 .77의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일관성 있는 규제(.55), 합리적 지도(.36) 등이 판별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의 하단에 제시된 판별함수의 고유치 아이겐값은 7.85로서 총 분산의 98.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준상관관계는 판별점수와 집단간의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판별함수의 판별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결과에서는 정준상관계수가 .94로 나타나, 미성취-성취 영재 집단에 대한 판별력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내 분산을 총분산으로 나눈 비율인 람다값이 .11

이고, 람다값에 자유도를 고려하여 계산된 χ^2 값이 513.51이며, 그 확률값이 .000으로 유의수준 0.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성취-성취 영재 집단간에 판별점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판별함수가 미성취-성취 영재 집단을 정확하게 분류할 확률이 9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판별함수의 집단 판별 적중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재능이 학업성취로 나타나지 못하는 미성취 영재들의 가정환경요인을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취 영재와 성취영재의 가정환경에는 전반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미성취 영재는 성취 영재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인 미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배경으로서 부모들의 교육과 직업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구병두(1996), 오성삼(1999), 이해명(1998), 임진영(1999), Bloom(1981), Fraser(1959), Iverson & Walberg(1980), Jencks(197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미성취 영재의 특성으로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들고 있는 박완득(1992), 전경원(1992), 윤경희(2003), Durr(1964), Montague(196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에 있어서도 과잉보호 척도를 제외하

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양육행동 중 합리적 지도, 애정,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에 관한 행동은 더 적게 보이는 반면, 권위주의적 행동은 더 많이 보이는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성취 영재 부모의 특성으로 권위주의적이고(Taylor, 1994; Weiner, 1992), 적대적이며(Conlengelo & Dettmann, 1983; Olszewski, Kulieke, & Buescher, 1987), 성취지향적이지 않고(Rimm & Lowe, 1988; Taylor, 1994), 무관심하며(Mandel & Marcus, 1988; Pierce & Bowman, 1960), 부모간의 양육방식이 불일치한다고(Gough, 1955; Rimm, 1986; Rimm & Lowe 1988) 기술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영재는 일반 아동들에 비하여 독립적이고, 권위적인 것을 싫어하며, 권위에 도전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Nicholls, 1979). 따라서 부모나 교사들이 권위주의적으로 이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영재의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미성취 영재 부모의 특성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과잉보호(Fine & Pitts, 1980; Gough, 1955; Pendarvis, Rimm, 1986; Rimm & Lowe, 1988; Weiner, 1992)는 성취 영재와 미성취 영재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성취여부에 관계없이 대체로 과잉보호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전경원, 1992).

둘째,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가정환경 요인을 판별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양육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판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위환경보다 과정환경이 학업성취와 더 큰 상관이 있고, 그 핵심은 부모-자녀관계 또는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이종승, 1981; Bloom, 1964; Jean, 2001; Kellaghan, 1977; Rimm, 1986; Rosenthal & Jacobson, 1986; Shaw 1960)와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극적인 참여 척도의 판별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의 합리적 지도나 애정적인 태도보다도 부모가 아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활동하며, 아동의 일이나 놀이에 참여하는 것이 영재의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영재는 일반 아동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미성취 영재의 미성취를 전환시키는데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성취 영재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후속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재와 미성

취의 기준을 지능지수와 표준화학력검사 점수로 한정지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영재와 미성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특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재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부모 자신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이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의 가정환경의 특성을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양육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정환경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의 가치관, 기대 등에 대해 좀 더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영재의 미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을 미성취 영재와 성취 영재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으나, 미성취 영재의 이러한 특성이 일반 미성취의 가정환경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미성취 영재와 미성취 일반아동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소외 영재와의 비교 등을 통해 미성취 영재의 가정환경 차이에 따른 다각적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강정구(1986). 교육성과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병두(1996). 학업성취 관련변인. 서울: 양서원.
- 김동일(1999). 학습부진 영재아동. 서울: 원미사.
- 김성연(1981).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기(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정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1981). 새 교육체제 적용 학교의 학업성취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숙, 윤점룡, 박효정, 박혜정, 권기욱(1987). KEDI-WISC 실시요강.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기종(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적간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이 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완득(1992). 미성취 영재아의 가정환경 및 인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경희(2003). 영재의 가정환경, 자아개념, 학업성적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331-353.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

- 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승(1980). 영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회.
- 이해명(1998). 중고등학교 영재의 학업성적 결정구조. *영재교육연구*, 8(2), 91-118.
- 장을균(198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금옥학술문화재단논문집*, 3, 187-225.
- 주현립(199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정규(1977). 정의적 행동특성. 사회계층, 학교성적의 인과관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논문집, 2, 1-14.
- Anonymous, A.(1998). Research identifies factors that influence underachievement. *Gifted Child Today Magazine*, 21(6), 7-8.
- Baker, J. A., Bridger, R., & Evans, K.(1998). Models of underachievement among gifted preadolescents: The role of personal, family, and school factors. *Gifted Child Quarterly*, 42, 5-14.
- Bloom, B. S.(1964).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Y: John Wiley.
- Bloom, B. S.(1981). *All our learning: A primary for parents, teachers and other educators*. NY: McGraw-Hill Book Co.
- Boulanger, D. F.(1980). Ability and science learning: A quantitative synthesi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18, 113-121.
- Brown, B. B.(1982). The extent and effects of peer pressure among high school students: A ret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121-133.
- Brown, B. B., Mounts, N., Lamborn, S. D., & Steinberg, L.(1993). Parenting practices and peer group affili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4, 467-482.
- Clark, B.(1988). *Growing up gifted(3rd ed.)*. Columbus, OH: Merrill.
- Diaz, E. I.(1998). Perceived factors influencing the academic underachievement of talented students of Puerto Rican descent. *Gifted Child Quarterly*, 42, 105-122.
- Durr, W. K.(1964). *The gifted student*. NY: Oxford University Press.
- Eva, D. R.(1994). Underachievement among high ability Puerto Rican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life experienc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Gill, F. H.(1984). Depression in underachieving gifted high school students and effects of a brief intervention strate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 Gough, H. G.(1955). *Factors related to differential achievement among gifted person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 Green, K. Fine, M. J., & Tollefson, N.(1988). Family system characteristics and underachieving gifted males. *Gifted Child Quarterly*, 32, 267-272.
- Hess, R. D., & Shipman, V. C.(1965). Early experience and socialization of cognitive mod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36, 369-386.
- Iverson, B. K., & Walberg, H. J.(1980). Home environment and school learning. *Evaluation in Education*, 4, 107-108.
- Jean, K. W.(2001). Gifted and at risk: Four longitudinal case studies of post high school development. *Roeper Review*, 42(1), 31-39.
- Jencks, C.(1972). *Inequality: A reassessment of the effect of family and schooling in America*. NY: Harper & Row.
- Jensen, A. R.(1972). *Genetics and education*. NY: Harper & Row.
- Kellaghan, T.(1977). Relationship between home environment and scholastic behavior in a disadvantaged popul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 1-12.
- Lavin, D. E.(1965). *The prediction of academic performanc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endarvis, E. D., Howley, A. A., & Howley, C. B.(1990). *The abilities of gifted childre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Peterson, J. S., & Colangelo, N.(1996). Gifted achievers and underachievers: A comparison of patterns found in school file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4), 399-407.
- Reis, S. M., Hebert, T. P., Diaz, E. P., Maxfield, L. R., & Ratley, M. E.(1995). Case studies of talented students who achieve and underachieve in an

- urban high school(Research Monograph 95120). Storrs, CT: University of Connecticut,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the Gifted and Talented.
- Renzulli, J. S.(1991).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The dream, and the destination. *Gifted child Quarterly*, 31, 83-89.
- Rimm, S. B.(1986). *Underachievement syndrome: Causes and cures*. Watertown, WI: Apple Publishing Company.
- Rimm, S. B.(1995). *Why bright kids get poor grades and what you can do about it*. Published in an earlier edition as *Underachievement Syndrome; Cases and Cures*. NY: Crown.
- Rimm, S. B., & Lowe, B.(1988). Family environment of underachieving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2(4), 353-359.
- Roger, W. D.(1998). Characteristics that discriminate achieving from underachieving gifted african-american students in their freshmen year in an historically black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Rosenthal, R., & Jacobson, L.(1968). *Pygmalion in the classroom*.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Sally, M. R.(2002). Internal barriers, personal issues, and decisions faced by gifted and talented females. *Gifted Child Today*, 25(1), 14-28.
- Sandra, K.(2003). Is there a gifted-child pedagogy? *Roeper Review*, 25(4), 165.
- Shaw, M. C.(1960). Attitude and child rearing practices of the parents of bright academic underachievers. *U. S. Public Health the Services Research Project*, M-2843.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Snow, R. E., & Yalow, E.(1982). Education and intelligence In R. Sternberg (Ed.), *Handbook of human intelligence(pp.493-585)*. Cambridge, MI: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rang, R.(1951). Mental hygiene of gifted children. In P. Witty (Ed.), *The gifted child(pp.131-162)*. Boston, MI: American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 Supplee, P. L.(1990). *Reaching the gifted underachiever*. NY: Teachers College Press.
- Taylor, R. D.(1994). Risk and resilience: Contextual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In M. C. Wang & E. W. Gordon(Eds.), *Educational resilience inner city America(pp.119-13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Van Boxtel, H. W., & Monks, F. J.(1992). General, social and academic self-concepts of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169-186.
- Weiner, I. B.(1992). *Psychological disturbance in adolescence(2nd ed.)*. NY: John Wiley and Sons.
- Whitmore, J. R.(1980).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achievement*. Boston, MI: Allyn and Bacon.
- Whitmore, J. R., & Maker, C. J.(1985). *Intellectual giftedness in disabled persons*. Rocksville, MD: Aspen.
- Zilli, M. G.(1971). Reasons why the gifted adolescent underachievers and some of the implications of guidance and counseling to this problem. *Gifted Child Quarterly*, 15(4), 279-292.

(2007년 6월 30일 접수, 2007년 9월 10일 채택)